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존제)를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뿜어라 여겨라.

## 2015년 신앙목표와 전도캠페인

# “변화를 입자. 그리고 구세주의 사명 다하자”

### 변화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승리제단 신도회는 2015년의 신앙목표를 '변화를 입자'고 정했다. 지난 2년간 계속해 온 자유율법실천운동으로 전 교인(敎人)들 중 상당수가 50% 이상 자유율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제는 완전히 인간의 탈을 벗고 구세주의 몸을 입을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유율법실천운동으로 50% 변화를 입었다면 50% 구세주의 몸을 입은 것이고, 60% 변화를 입었다면 60% 구세주의 몸을 입은 것이 된다. 그렇게 노력하여 100%의 변화를 입으면 그는 완성의 구세주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당신은 몇% 변화를 입었는가?

### 변화를 입으려면

변화를 입으려면 연단을 받아야 한다. 개인은 개인의 연단, 단체는 단체의 연단을 받아야 한다. 연단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입을 수 없다.

우리 승리제단 교인들은 그동안 각자가 처한 현실에서 연단을 수없이 받아왔다. 가족과 친척, 직장과 모임에서 파도림과 질시를 받았고, 그것을 잘 이겨내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건 간에 자신 있게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문제는 현재 개인이 아닌 단체로서 우리 승리제단 교인 전체가 처한 현실 입장은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마스크에 의해서 덧씌워진 살인집단이라는 누명은 좀체 벗겨지지 않고 있다. 오염되기는 쉬우나 깨끗하게 씻기 어려운 것처럼 이 누명은 한 생명 살리는 데에 엄청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구세주의 사명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2014년 본부제단 노방전도 현장

### 조희성 구세주의 연단과정에서 배울 점

그렇다고 수수방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면 돌파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면 돌파해 나가야 하는가. 그 답은 구세주 조희성 선생의 연단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승리제단 교인들이 처한 현실과 구세주 조희성 선생께서 연단 받으실 때의 과정은 너무나 흡사하다. 즉 조희성 선생은 이유 없이 마귀로 낙인이 찍혀서 신앙의 형제들로부터 심한 파도림과 학대와 핍박을 받으셨다. 박

대선 장로님이 조희성 선생에게 안찰을 안 해주자 신앙촌 교인들은 박대선 장로님이 조희성 선생이 마귀이기 때문에 안찰을 안 해준다고 잘못 생각하여 천대 멸시와 갖은 핍박을 가하였던 것이다. 연고 없는 핍박이다.

이와 똑같이 승리제단도 연고 없는 핍박을 받고 있다. 마스크에서 잘못 보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죄가 없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살인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승리제단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앞길이 분명하게 보인다.

수많은 신앙촌 교인들이 30여 년간 조희성 선생을 마귀라고 손가락질하고,

가래침을 뱉고, 예배를 보러 오면 끌어내서 모포를 뒤집어 씌워서 개 패듯해도 때리는 사람들을 눈곱 만큼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겨내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모든 신앙촌 교인들로부터 "믿으려면 조희성이처럼 믿으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신앙의 표본이 되었다.

우리 승리제단 교인들도 마찬가지로이다. 조희성 구세주처럼 연고 없는 핍박을 이겨내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앙을 하려면 승리제단 교인들처럼 하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여 영생을 쟁취한 구세주가 된 것처럼 우리 승리제단 교인들도 구세주가 되지 못하면 영생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 작은 구세주로서 전도하기

김삼욱 회장은 현재를 '약조건의 호조건'으로 정의했다. '약조건의 호조건'이란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지만 나머지는 모두 호조건의 호조건에 해당되어 만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승리제단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따라 전 세계 만민들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승리제단 교인들은 자신의 책임과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올해는 우리가 작은 구세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리제단 전 교인들은 적어도 올해 꼭 1명 이상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그것이 구세주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다.\*

김중천 기자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52)

“1980년을 기해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다”

태초에 에덴동산에 아담·해와·하 나님 즉 세 씨의 영이 있었던 고로 두 씨, 즉 마귀에게 정복되었던 아담과 해와를 찾아야 에덴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1980년도를 기해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1980년도를 기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완성되는 순간 에덴동산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을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려고 완성의 하나님이 연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만 가면, 7천 년대만 되면 저절로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세계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역사는 덤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은 오히려 죄인들입니다. 누구든지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순종치 않는 자는 불 구령당이에 단짐을 받을 것입니다.\*

... 새해를 맞이하여 ...

## 이 추수기에 당신은 알곡인가 쪽정이인가

하늘 사람을 찾아 구원하는 이 마지막 대역사에 주역이자 구세주로서의 소임을 다하자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은 현실점에 있어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대처해 나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2015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각자가 자기 성찰을 통하여 자문자답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 다.

대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위대하고 영원한 하늘은 동방에서 출현하여 변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라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세자르에게 글을 남겼다. 조선 명종 때의 신인(神人) 남사고는 격암유록 말운론에 천지운행 도수가 뒤바뀌는 대 전환기에 몸소 사람으로 강림하 신다는 예언이 있다. 두 예언서는

아 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은 주역에도 나와 있다. 또한 예언 적중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격암유록은 20세기 후반부터 우주의 가을이라는 것을 잘 말하고 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농사 짓는 농부에게도 때가 있음을 알고, 바다 고기를 어획하는 어부도 때를 알고 거두어 들인다. 인간사 때를 아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건 공통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성경에도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심히 적어 제 때 수확하지 못 한다' 하여 탄식하는 비유가 있다.



자금은 바야흐로 우주의 대 변혁기이자 과도기이다. 지구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온갖 재난과 천재지변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방송과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음을 잘 알 것이다. 이미 가을의 추수기가 시작되었고,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요즈음 설교말씀에 따르면 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우리를 2년 동안 도의 것을 먹이 시고 영적으로 키워 오신 하늘 사람 조희성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남기신 가운데 "이 사람은 알곡과 쪽정을 키질해서 알곡은 모아 천국참고에 들고, 쪽정은 바람에 날려 지역 불에 던져버린다"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역 상 간방(良方)의 가을의 운을 타고 인간을 추수하려 온 사명자임을 역설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영원한 우주의 시간대에서 어느 시점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곧, 생사존망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생사고해의 망망대해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찾

우리는 좌도 우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다가올 미래의 환란과 재앙에서 한 생명이라도 살아남을 자를 찾아 승리제단이라는 구원방주에 속히 태워야 할 때다 여겨진다. 현재 자신의 안위와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느라 사람 구하기를 게을리 하면 그 날에 크게 꾸짖을 받을까 염려된다. 그러므로 승리제단 식구 누구라도 내적으로는 자신을 이기고 밖으로는 사람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시점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승리제단 형제자매 여러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하늘 사람을 찾아 구원하는 이 마지막 대역사에 주역이자 구세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희생양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중호 기자

### 2014. 12월 본부제단 활동 평가



### 오랜만에 4지역 1등 차지

본부제단은 1.6. 구역장회의에서 2014. 12. 성적 발표 및 시상식을 하였다. 3개월간 1등을 차지하며 독주를 해오던 3지역을 밀어내고 4지역이 7개월 만에 1등을 했다. 4지역은 전 지역 식구들이 고르게 점수를 획득하였고, 특히 김정순 승사가 많은 힘을 기울였다. 2등을 한 5지역과 3등을 한 2지역은 서너 명의 특별한 힘이 등수를 올리는 데 기여하였다. 2지역도 오랜만에 등수에 들었다. 겨울이라 전도 점수는 성적에 그치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윤봉수 대표는 "등수를 차지한 사람들은 그만큼 운정성을 기울였다는 증거이다. 물론 다른 사람도 열심히 했지만 등수 내에 든 사람들의 그 열의는 칭찬받

아 마땅하다."고 말씀하며 덧붙여 "주님말씀을 늘 외워야 실천이 된다. 그러므로 요절을 외우는 것은 신앙을 바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니 꼭 모두 요절을 외우도록 하라."고 강조하였다.

- 지역 1등, 4지역(지역장 윤봉수, 지회장 이영애) 지역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지역 3등, 2지역(지역장 강중태, 지회장 김혜선)
- 구역 1등, 45구역 신순이 구역 2등, 42구역 고선희 구역 3등, 38구역 김정순
- 개인 1등, 신순이 권사 개인 2등, 정수운 승사 개인 3등, 김인숙 집사\*

##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세종교

## 三神一體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본지 지난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